주의 수난 성지주일
제 1 독서 : 이사 50,4-7
제 2 독서 : 필립 2,6-11
복 음 : 마태 26,14-27,66

숲정이

"이것은 나의 피다.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마태 26,28)

강론

죽음 건너 저쪽은 부활

범선배 신부 / 광주 가톨릭대학교

우리는 지금 사순시기를 끝내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앞에 둔 주의 수난 성지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동안 참회와 보속과 희생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온 삶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우리 인간을 위하여 바치셨음을 묵상했습니다. 또 우리 나름대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인 성주간 동안에 그분 사랑의 여러 가지 표현을 묵상하면서, 부활이 없는 수난만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교 인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말 것입니다(1고린 15,11-19 참조). 즉 고통 그 자체만으로 온전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며, 어떻게 보면 극복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고통은 엄연히 우리 곁에 항상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고통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물음을 가지고 성주간을 지내는 것이, 주님의 수난뿐 아니라 우리 삶의 큰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데에 도움이 되며 또 고통이 은총의 다른 표현이며 기회임을 아는 데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로마 8,18-39 참조).

오늘날의 생활방식이 여러 가지로 예전보다 더 안락하고 편리하지만, 그것이 더 보람있고 의미있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곧 고통이 적고 편안하다는 것이 나쁘거나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에 너무 빠져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도 고통을 겪으셨으며 가장 큰 고통인 죽음까지도 거치셔서야 영광중의 영광인 부활에 이르셨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여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곧 기쁨과 고통 어려움 같은 것에서 뜻을 읽고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주님과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건너야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수난만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교 인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 명

기억이 안 난다고?

한 상 갑(바오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역사적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청문회나 재판에서 가끔 들었다. 이 말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은 속이 상했다. 또 허탈해 했다. 성실하지 못한 그 답변에는 응분의 책임을 지지않으려는 불량한 속셈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신 말짱하세요?

이런 우스갯 소리가 있다. 50이 넘은 여인 셋이서 여고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다. 한 여인이 모교의 교가 가사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니, 다른 하나가 자기는 그렇지 않다며 자신만만하게 "남산 위에 저 소나무…"하면서 교가랍시고 애국가 2절을 불러댔다. 그러자 누군가가 자기와 교가가 같은 걸 보니 동창인가보다며 뛸듯이 반가워했단다. 그러자 그걸 본 다른 여인은 댁들의 교가가 매일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보니 굉장히 유명한 학교를 졸업한 모양이라며 놀라더라는 것이다.-누가 꾸며낸 건지는 몰라도, 무신경한 현대인을 꼬집는 그럴싸한 이야기다.

이건 실제상황이다.-퇴근길 아파트 입구에서 어처구니 없는 혼란에 빠진 적이 있다. 주차되어 있는 어떤 자동차의 번호판 숫자가 낯설지 않았다. 한참을 생각해 보니 그건 바로 우리 집의 지난번 전화번호와 같은 숫자다. 그렇다면 지금 전화는 몇 번인가하고 생각해 보니 영 떠오르지 않는다.-건망증이 심해서인가, 아니면 치매증 초기상황이라도 된다는 것인가하는 생각이 들어 피식 웃고 말았다. 정작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해야 하는데…

▣검증이 필요한 사람들

선거철이라서 그런지 후보자들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단다. 비방과 흑색선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비방 내지는 흑색선전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에는 그에 대한 검증(檢證)자료가 될만한 것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도 관심을 갖는다.

사람은 누구라도 잘못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도 인간이 위대한 것은 그 잘못을 거울삼아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 번 된다고 말한다. 한두 번의 실수에 대해서 쉽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연고도 이 때문이다. 새로운 탄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직자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공직자에게는 전문성 못지 않게 도덕성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도덕성에 바탕을 두지 않은 전문성은 사람을 해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자에 대해서는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들은 공직자의 검증에 굉장히 너그럽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선거 때만 되면 이리 저리 당을 옮겨다닌다. 어제까지 신념이 다르다고 비난해대다가도 이해득실을 따져 한패거리가 되기도 한다.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인물들조차 버젓이 얼굴을 들고 행세한다. 그런데도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다. 그것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또 용서하면 쉽게 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용서하는 일과 잊어버리는 일은 다르다. 용서는 해도 잊어서는 안될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잊어서는 안될 문제까지도 잘 기억해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숲정이 산책

그러나 밑에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가족의 사순절

송병운(미카엘) / 서학동 천주교회

일요일 오후, 가족들을 데리고 천호성지를 향하였다 아이들은 단순히 밖으로 나간다는 자체가 좋아서 들떠 있는 모습이었다.

언제라도 마음이 편해지는 곳, 신앙이 살아 숨쉬는 이 성지의 이곳 저곳을 안내하면서 가족들에게 순교자들의 삶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묘지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왜 이들이 죽음을 택했는지, 왜 이곳에 묻히게 되었는지를 얕은 지식을 총동원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알듯 말듯한 표정을 짓는 아이들과 함께 주모경을 바치면서 나의 사순절은 시작되었다.

사순절이 되면 많은 신자들이 나름대로 어려운 고행을 선정, 자신의 내적 회개와 신앙쇄신을 위한 시기로 삼는다. 이에 우리 가족은 순교자들의 삶을 묵상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공부하여 모래알처럼 약한 우리 가족의 신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기로 삼기로 하였다.

우리 나라의 천주교회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 땅에 천주교를 심고 가꾸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 갔던가. 단지 천주를 믿는다는 한가지 이유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온갖 고문과 잔인한 죽음을 당하였다. 천주를 믿지 않겠다는 한 마디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어찌 그처럼 용감할 수 있었을까? 나에게 그러한 상황이 닥친다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분들을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닮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순교자들은 천주님이 자신들의 편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천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고 비록 죽음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천주님 곁으로 가게 된다는 믿음이 그러한 용기를 주지 않았겠는가!

언젠가 들었던 어느 수녀님의 "우리는 예수님 빽(background)이 있는데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라는 말씀이 요즈음에 와서 내 마음에 와 닿는다. 예수님을 든든한 보디가드로 여길 수 있고 이러한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할 수 있는 든든한 신앙을 갖는 날이 나에게도 올 것인가 하는 의심과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의 계획대로 사순절 동안 전주 근교의 성지를 순례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많은 느낌이 있었다. 덕분에 밤이면 함께 모여 로사리오를 바치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때로는 아이들끼리도 촛불을 켜고 기도하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사순과 부활

최희자(아녜스) / 복자 천주교회

3월 25일, 딸 젬마가 대구에 있는 S수녀원에 입회하였다.

지난 가을에 수녀원에 가기로 했다고 했을 때는 딸애의 결심에 놀라기는 했지만 내심으로는 기쁨이 컸다. 그런데 막상 이것저것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자꾸만 눈물이 앞을 가린다. 헤어진다는 슬픔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섭섭함인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이런 내 마음을 아는 듯이 딸애는 내 손을 꼭 쥐며 나를 쳐다본다. 딸아이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살며시 웃어 주었다.

사랑하는 딸과의 이별을 생각하면 눈물이 자꾸만 나온다. 눈물 대신 기도로 마음을 달래면서 이번 사순절을 지내게 되었다. 딸과의 이별이 줄 눈물을 참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극기와 희생이었다. 그러나 모두 잠든 밤이면 혼자 앉아 소리 없이 얼굴을 묻고 울음을 삼키는 때도 있었다. 참으로 내색없이 참으려니 힘이 들었지만 나보다 더 슬프고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생각하며 기도와 묵상을 하고는 했었다.

나는 딸 둘을 두었다. 남들처럼 많이 가르치거나,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관과 남을 돕고 사는 정직함을 강조한 것이 딸들에게 준 나의 전부이다. 내가 물려준 이 유산을 자녀들이 잘 살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언젠가 딸들이 "엄마, 나에게 하느님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을 키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하느님께서 돌봐 주셔서 딸들이 예쁘게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주님의 정배가 되고자 수도자의 길을 선택한 젬마를 늘 주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을 믿는다. 사랑하는 나의 딸 젬마가 걸어갈 수도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들을 감사하며 열심히 살고 싶다.

딸을 통해서 어느 때보다 사순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게 되고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맞이할 것 같다.

특집

····성 주 간

성주간 월요일
(요한 12,1-11)

주님에 향한 삶의 봉헌

우리는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한다. 이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신비에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간을 성주간이라고 부른다. 오늘 복음말씀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 및 매장에 관련되어 있다.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마리아는 그분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확실히 깨닫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값비싼 향유를 들고와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주님께 전념하는 삶을 상징한다.

성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는 교만을 벗어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사랑을 바쳐야 한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의 표시는 곧 보속과 회개와 봉헌의 생활을 대담하게 실천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나는 주님께 드리는 가장 귀중한 예물인 우리 매일의 삶을 주님께 어떻게 봉헌하며 살고 있는가?

성주간 화요일
(요한13,21-33.36-38)

회개하는 삶

오늘 복음에 나오는 두 사람, 충성을 고백하는 베드로와 제 갈 길을 가는 유다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전혀 달랐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 하였으나, 잘못을 범한 후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 취한 태도는 완전히 다르다. 베드로는 회개한데 반해서 유다는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는 베드로를 닮은 점이 많다. 예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겠노라고 결심을 하지만 정작 실천에 옮기는 데는 태만한 경우가 많다. 또 주님께 대한 진지한 열심을 보이지만 나약함 때문에 지속적이지 못하다. 믿음에 헌신적이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살기도 한다. 우리가 베드로의 약점들을 닮고 있다면 그의 강점들 역시 닮도록 해야 한다. 베드로는 단순하고 솔직하고 정이 많았으며, 약삭빠르지도 않고 믿는 데는 적극적이였다. 특히 죄인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목격해 왔기 때문에 용서의 확신 또한 믿고 있었다.

그에 반해 유다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냉담한 상태에 있거나 주님을 배반하는 상태에 있다면 주님께 다시 용기있게 돌아가도록 하자.

나는 죄나 좌절,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가?

성주간 수요일
(마태 26,14-25)

수난은 계속되고…

예수님의 고통이 십자가에서나 게쎄마니 동산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가시관을 쓰고 못이 박히는 것보다도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배신당했을 때의 고통이 더 클 수도 있다. 우리도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본다. 그들은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눈 이들이였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이 그분을 배신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떠난다. 문이 닫히고 서두르는 발걸음 소리를 듣는 예수님의 마음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죽음의 때를 아시고 당신 아버지께 사랑으로 순종하고 죽음을 흔연히 받아 들이신다.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가장 큰 희생적 사랑을 본보기로 보여 주신다. 그분의 수난은 아버지이신 성부와 우리들에 대한 자발적이고 자의적인 사랑의 완벽한 표현 그것이였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지극한 사랑에 다시금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는 지금 주님께 "저는 아니지요?"라고 말할 수 있는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전
김종환 치과
가톨릭공제조합지정
원장 김 종 환(안드레아)
박 정 현(레지나)
진북동 우성타운 내 외환은행 건너편
☎ 88-7744,77-2011

덕진 삼익피아노
(서정우 특약점)
· 국가공인 1급 A/S 지정점
· 36개월 할부, 중고보상교환
서정우 · 이혜경(글라라)
북전주전화국←→법원 중간
☎ 253-3232,254-2631

영창피아노 전주중앙대리점
A/S 전문점
· 6개월 무이자 판매
· 36개월 월부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우대
전상진(베드로) 유명숙(요안나)
다가동 파출소 옆
☎84-6085,84-9989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올겐,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 지도 담당
동서 관통로 다가교 입구
김태우(알폰소) · 황진숙(안젤라)
☎ 88-7717~8

묵 상 .....

주의 만찬 성 목요일
(요한 13,1-15)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

오늘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날이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과 함께 드셨던 이 최후의 만찬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보낸 많은 시간들 중에서도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을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성체성사를 제정하는 기회로 삼으셨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보통 때와는 다른 특별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와 남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고,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낮추셨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착한 목자이며 대사제이신 그리스도는 당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일을 계속하시며,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섬기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신다.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서 보여 주셨던 모범을 닮으려 노력해야 한다.

●나는 지금도 성체성사를 통해 보여 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나눔과 섬김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의 수난 성 금요일
(요한 18,1-19,42)

십자가를 통한 새 생명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성 금요일은 미사가 없다.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 하루를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날로 지낸다. 주의 수난 전례는 기도와 독서로 시작하는데, 특히 요한의 수난사에 초점을 맞춘다. 독서와 기도를 마치면 십자가의 경배가 있다. 세상의 구세주가 달린 십자나무이다. 어찌 우러러 보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통한 하느님의 조건없는 사랑의 극적인 표시이다. 세기를 통하여 십자가는 공경을 받는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당신의 십자가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체험하기를 바라신다. 또한 당신 십자가를 통해 죄의 고리를 끊고 창조 때의 모습을 되찾기를 바라신다. 당신 십자가로 우리가 변화되어 거룩한 생활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갈구하고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우리 각자에게 무한한 의미를 갖는다.

갈바리아 산에서 죄와 죽음을 정복했던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도 죄와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 이천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는 십자가의 의미와 죽음을 잘 묵상하며 살고 있는가?

편집부

매일 성서 묵상 잡지
야곱의 우물(월간지)
「야곱의 우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기쁨에로 당신을 초대할 것입니다.
• 가격 : 1,000원 • 1년구독 : 10,000원
• 연락처 : 성바오로 서원(☎252-3398)

치질전문치료
서 울 의 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75-055C

예수회 성소자 모임
• 때 : 4월6일(토)후6시(매월1,3째 토요일) • 장소 : 서강대 내 예수회 지구본부(K관 아래) • 자격 : 대학 재학 이상 • 문의 : (0331)43-3045 제병영 신부, (0331)47-3045, (02)719-1803 정강엽 신부, (02)705-8575, 379-3859

이 전
정 성 약 국
약사 정성규(마르띠노)
동국해성APT 상가 106호
(구 해성고)
☎ (0652)254-7322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대여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841-2496, 855-8653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 모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미혼여성
• 일시 : 3월31일(일) 오후 2시
• 장소 : 삼랑진 본원(0527)52-4241
• 준비물 : 신구약 합본 성서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성 소 모 임
• 일시 : 4월7일 오후 2시 (매월 첫째주일)
• 장소 : 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산13-24
• 문의 : (051) 514-1773
〈해외 선교와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사목단상

군종신부가 갖는 기쁨

주묵성 신부 / 충의 천주교회

초등부 주일학교 미사 강론 시간에 '오늘은 신부님께서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하실까'하는 듯 맑은 눈동자로 바라보는 아이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여러분은 국제 정세의 앞날을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눈만 멀뚱멀뚱, 대답이 없다. "주가가 연일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아무런 대답이 없다. 내친김에 하나 더. "김영삼 대통령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랍게도 한 녀석이 손을 번쩍 든다. "응, 윤식이가 대답해 봐." "신부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쉬운 것 물어 보세요." 정작 묻고 싶었던 것을 묻는다. "여러분은 사는 것이 기쁘세요?" 의외의 대답, 전원이 약속이나 한듯이 외친다. "예…" "니들이 뭘 안다고 예는 예냐, 이놈들아."

어느 날, 사병들 교육 훈련장에 위문을 갔는데, 사병 하나가 면담을 요청한다. 군대가 자신이 가진 삶의 가치관과 맞지 않아 탈영할 생각이란다. "그래? 너 생각 잘했다. 언제 탈영할 건데? 내가 뭐 도와줄까? 차 필요하면 내 차 가지고 가라." 기가 막히다는 듯 사병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불쑥 물었었다. "신부님, 사는 것이 기쁘세요?"

그 말은 그때부터 풀리지 않는 화두가 되었고, 오늘도 그 답을 찾아 낑낑거린다. 나는 정말 기쁘게 사는가? 사는 것이 기쁜가? 어느 때 기쁜가?

사람의 얼굴이 천차만별이듯이, 기쁨의 빛깔 역시 다양하리라. 어떤 이들은 만족감이 기쁨인 양 착각하며 살기도 할 것이고, 지 잘난 맛에 기쁘게 사는 척 위장하기도 할 것이다. 슬픔 속에서도 잔잔히 묻어 나는 참 기쁨을 발견하는 혜안을 지닌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군종신부로 4여 년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삶의 기쁨을 발견하지만, 그중 큰 기쁨 중의 하나가 본당에 속한 신자 전체를, 갓난이부터 팔순 노인·분들까지 속속들이 안다는 것이다. 본당 식구라야 70여 세대 400여 명에 불과하기에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진달래동 새댁 산달이 언제인 지까지 알게 되고, 적절하게 배려할 수 있는 기쁨, 본당 교우 댁이면 누구의 집이든 한 집도 빠트리지 않고 크고 작은 애경사에 신부와 수녀가 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사목자가 체험하는 기쁨이 아닐런지. 또 하나의 기쁨이 있다면, 신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것일 게다.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본당에서는 누가 전출 갔는지, 미사는 왔는지, 누가 누구집 딸내미인지 알기가 힘겹지만, 군 성당은 빤하다. 한 세대가 전출 가거나 미사를 빠지면, 그 신자가 평소에 앉던 자리가 비어 있어 금새 알 수 있게 되고, 셋째딸녀석 시집보낸 듯 섭섭함을 갖게 된다. 반면에 어쩌다 세례를 한 명이라도 주게 되면, 고희 잔치 때 아들 얻듯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사병들 교육 훈련장에 위문 갔을 때 신자라야 가뭄에 콩 나듯 고작 한둘 뿐이지만, 그들만 있어도 반가움에 눈물이 난다. 빈곤 속의 풍요로움!

군종사목은 그래서 기쁘다. 신부가 왜 사는지를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고, 신자를 존중하는 겸손을 배우는 까닭이다. '신자는 신부의 얼굴이고, 신부는 신자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매순간마다 확인해 볼 수 있기에 보다 내가 나다운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는 문제이다.

오늘은 요아킴 씨 건당 진단 결과 나온댔지, 당뇨기가 조금 있댔는데, 생크림 케이크(?)나 사다 줘야 겠다.

남부커텐
원단 도매·가공·시공
인타·스모크
김 형 문(대건안드레아)
이 장 주(신니아)
전주 성원오피스텔 옆
☎ (0652) 85-3131

임혜연 웨딩샵
드레스, 예복 대여전문점
임 혜 연(엘리사벳)
전풍백화점 앞 에스쁘리 2층
☎ 85-5041

풀무원 내추럴하우스
풀무원이 만든 다이어트!
(전문상담원 무료상담, 체지방 비율측정)녹즙기 종합대리점
(엔젤/그린파워/요리손)
김재식(라파엘)·이은실(라파엘라)
정읍시 연지동 연지APT 정문 앞
☎(0681)535-5432, 536-5432

입시 미술 전문학원
꿈꾸는 연필
대입반, 고1·2 재학생
예고반, 전문대반
강 성 진(프란치스코)
완산구청 옆 대림빌딩 3,4층
☎ 83-6512

교구소식

❖교구장 성삼일 전례 일정

전 례 별	날 짜	시 간	장 소
성유 축성 미사	4월4일(목)	오전 10시30분	중앙 성당
주의 만찬 미사	4월4일(목)	오후 7시30분	인보성체 수녀원
십자가의 길 기도	4월5일(금)	오후 3시	치명자산 14처
수난 예절	4월5일(금)	오후 8시	신동 성당
부활 성야 미사	4월6일(토)	오후 10시	중앙 성당
예수부활대축일미사	4월7일(일)	오전 10시30분	나운동 성당

❖이병호 주교님 성성 6주년
- 4월 3일(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지복구를 위한 특별헌금
- 때 : 4월 5일(성 금요일)
- 장소 : 각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천호 피정 안내
- 때 : 4월 18일(목)
- 주제 : 왜, 기도해야 하나 !
- 강사 : 김정수 신부
- 때 : 4월20일~21일
- 주제 : 봉사와 형제애
- 강사 : 유수일 신부
- 문의 : 73-6600

❖사회복지 월례미사
- 때 : 4월 1일(월) 오전 10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가톨릭 문우회 모임
- 때 : 4월 6일(토) 오후3시
- 장소 :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훼꼴라레 모임
- 때 : 4월 7일(일) 오후 2시
- 장소 :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박동진,김광석 신부 주소
M.E.P
128 Rue de Bac
75007 PARIS
FRANCE

❖리수현 신부 주소
Philosophisch-Theologische
Hochschule st.Georgen
Zimmer S117
offenbacher Landstr.224
D-60599 Frankfurt/M, Germany
☎001-49-69-6061-357
Fax 001-49-69-6061-330

❖푸른군대 피정
- 4월4일(목) 성 목요일 관계로 없습니다

❖기억할 사제
- 5일 이철현(프란치스코) 16주기

성소모임

❖성바오로딸 수도회
- 때 : 4월 14일 오후2시
- 장소 : 성바오로 서원
- 문의 : 252-3398

❖예수성심전교수녀회
- 때 : 수시로 성소 상담
- 문의 : 226-3487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집안의 악취 제거법 ①

건조된 커피는 냉장고 악취 제거에 효과적

냉장고 안에 냄새가 나기 쉬운 곳은 야채실, 날 것으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구석까지 잘 살피고 야채가 썩지 않았나 확인해야 한다.

건조된 커피를 작은 병에 약간 넣고 뚜껑을 연 채로 냉장고 구석에 놓아 둔다. 며칠이 지나면 은은한 커피향이 배어나와 냉장고의 악취가 사라진다.

쓰레기통 아래 신문지 깔면 습기, 냄새 동시 제거

젖은 쓰레기가 담긴 쓰레기통에서는 비위가 상하는 역한 냄새가 난다. 신문지를 쓰레기통 바닥에 깔아 놓아 보자. 수분을 흡수함과 동시에 나쁜 냄새도 빨아들인다. 또 냄새가 심한 젖은 쓰레기를 버릴 때도 신문지에 돌돌 말아 버리면 효과적이다.

모두랑 외식산업
도시락-야외용,장지용,성지순례용
출장파티-준공,개업식,회갑,결혼피로연
서 영 호(야고보)
진 미 언(루시아)
정읍시 연지동 312-1
☎(0652) 72-8758
☎(0681)537-0505~6

조경공사 전문업체
한 국 조 경
- 농장직영-조경수,유실수,잔디
- 준공검사 수목 식재 (주택,상가,아파트,별장)
- 묘지 조성(조경)

정 정 문(사도요한)
☎(0652)221-2002,3641

삼성기린컴퓨터대리점
컴퓨터,휴대폰,호출기
팩스,유무선전화기
이창재·강화복(안젤라)
영동병원 사거리
☎78-2121~3
호출기 012-678-5424

LG 냉난방 전문점
에어콘,온풍기
공기정화기,식당용 냉장고
원 종 삼(발라바)
원 승 연(도밍고)
서신동과 어은로 중간
빙상경기장 앞
삼화공조 ☎241-2000

라 우 건 설
상가,주문주택,주유소,
목욕탕,숙박시설,토목
송 기 종(라우렌시오)
삼천동 우성상가 2층
☎225-0438~9
호출기 012-684-0924

대륙 전자식 온돌 판넬
방바닥을 뜯지 않고
당일 깔아서 바로 사용
박 금 옥(요한)
태평동 혈액원 앞
☎74-3571
(휴)011-655-2231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주임신부 82－9663 사 무 실 82－9661 주임신부 범 영 배
F A X 82－9664 수 녀 원 82－9662 사목회장 김 동 주

◉ 주의 수난 성지주일 : 사순절 공동 2차헌금 있음
◉ 미사시간 변경 : 4월1일부터 저녁미사 7시→7시30분으로
1. 부활 대축일 단체별 윷놀이대회 및 나눔의 잔치 : 7일 공식미사 후 ＊ 윷놀이 참가 사무실에 신청바람
2. 성유 축성미사 : 4일 전 10시30분, 중앙성당
3. 성삼일 전례(내일부터 성주간이 시작됩니다)
   ①성목요일 : 주의 만찬미사(세족례) 후 7시30분
   ＊ 성체조배 시간표－게시판 참조바람
   ②성금요일 : 십자가의 길－후 3시, 십자가 경배－후 7시30분
   ＊ 성지복구를 위한 헌금있음
   ③성토요일(부활성야)－후 7시30분, 어린이미사 없음
   ④부활대축일 : 새벽 5시30분, 전 9시, 전 10시30분, 후 7시
4. 부활계란 : 반별로 성토요일 후 7시까지 봉헌바람
5. 견진성사 : 4월27일(토) 후 4시
   ＊ 견진하실 분은 사무실에 신청바람
   타본당에서 세례받으신 분은 세례증명서 제출
6. 사목회 상임 : 3일 후 7시 30분
7. 모임 : ①성심회, 자모회－3일, 어머니미사 후
   ②반회장모임－4일, 전 10시30분
   ③울뜨레야－7일, 공식미사 후
8. 성미주머니 돼지저금통 사무실에 내 주세요.
9. 금주, 차주 전례 : 중노 1,2구역
10. 금주 청소 : 인후10반, 남노1반
11. 차주 청소 : 남노2반, 남노3반

□ 지난주 봉헌금 : 1,018,980원 □ 교무금 : 965,000원

＊ 복 자

주임신부 86－3453 사 무 실 86－3455 주임신부 정 승 현
수 녀 원 86－3454 사목회장 박 상 기

◉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받으소서.
1. 오늘은 주의 수난 성지주일 : 사랑 나눔을 위한 2차 헌금
2. 차주 모임 : 성우회, 대건회－공식미사 후
   사목회－저녁미사 후
3. 성주간 전례(유인물 참조)
   4월 4일 : 주의 만찬 성목요일 후 8시
   해설－정승훈, 독서－①김영기 ②김인봉, 봉헌－김용수 부부, 세족례－박춘식, 황유현, 이병현, 강희술, 정민모, 이화원, 김연길, 박종현, 손진영, 김인봉, 김동일, 이남덕
   4월 5일 : 주의 수난 성금요일 후 8시(단식, 금육)
   성지복구를 위한 2차 헌금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후 3시, 십자가 복사－이준철, 초복사－김영기, 문금철, 해설－최옥남, 독서－①박남수 ②이준철, 수난복음 : ＋신부님, ○강기연, ◎육종만
   4월 6일 : 예수부활성야 성토요일 저녁 8시(초 지참)
   해설－형임순, 독서－①구본창 ③조운일 ⑦정승판 서간－안철조, 봉헌－장홍덕 부부
4. 예수 부활 대축일 : 4월 7일(다음주일)
5. 금주 전례 : 해설－유두석, 독서－육종만 부부, 봉헌－김홍현 가족
6. 성당 청소 : 4월 6일(토) 밝히오리다Pr., 샛별Pr.

□ 지난주 봉헌금 : 782,650원 □ 교무금 : 1,327,000원

＊ 상 관

주임신부 85－6654 사 무 실 85－6652 주임신부 한 봉 섭
F A X 85－6652 수 녀 원 85－6653 사목회장 감 덕 용

◉ 오늘은 주의 성지주일－교구 사회복지 2차헌금
◉ 부활절 사제양성 후원회비를 납부합시다－구역장
1. 차주 모임 : 요셉회, 동정녀들의 모후Cu.－공식미사 후
2. 부활절 특별 감사헌금과 불우이웃돕기 돼지저금통을 정성껏 봉헌합시다.
3. 성주간 및 부활대축일 전례
   ①성주간 미사 : 월－아침 6시, 화, 수－후 7시30분
   ②성목요일 주의 만찬미사(세족례) : 후 8시(사랑의 헌금)
   ③성금요일 : 십자가의 길, 후 3시(단식과 금육)
   ④성금요일 십자가 경배 및 성찬식 : 후 8시(성지 복구헌금)
   ⑤성토요일 부활 전야미사 : 후 10시
   ⑥부활대축일 미사 : 전 10시30분(천교의 시간)
4. 병자봉성체 3일(수)에 있습니다.
5. 감사! : 제대꽃 봉헌－최상옥, 강옥례(3만원), 안아가다(2만원)
6. 부활대축일 후 3시 어린이미사는 없습니다.
7. 부활절 판공성사 : 매 미사 전후－성사표는 사무실
8. 성유 축성 미사 : 중앙성당 4일(목) 10시30분
9. 성당청소 : 금주－사랑하올 어머니Pr., 차주－샛별Pr.
10. 금주 전례 : 해설－이춘봉, 독서－①김완식 ②오민숙
    수난복음－한동옥, 최원규, 봉헌－황옥섭 가정
11. 차주 전례 : 해설－김영신, 독서－①한동옥 ②이석남
    봉헌－한동옥 가정

□ 지난주 봉헌금 : 392,700원 □ 교무금 : 275,000원

＊ 서학동

주임신부 84－8307 사 무 실 86－4929 주임신부 이 종 원
수 녀 원 84－2276 사목회장 민 병 부

◉ 오늘은 사순절 공동 2차헌금이 있습니다.
1. 전화번호부 광고신청 : 협조해 주신 12분께 감사드리며 4월7일까지만 사무실에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2. 주의수난 성지주일 : 오늘 공식미사중, 성지축성예식
3. 성삼일 전례 : ①성목요일－주의 만찬미사, 후 8시, 성체조배－시간표는 게시판 참조
   ②성금요일(금식과 금육)－주의 수난예절, 후 8시, 미사후 십자가의 길 ＊ 성지복구를 위한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③성토요일－부활 성야미사, 후 9시
4. 부활대축일(4월7일)미사 : 새벽 6시, 전 10시, 후 4시(어린이미사)
   ＊ 부활성수－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공식미사 후 신자분들께 떡국을 대접합니다.
5. 성 빈첸시오 아·바울로회 96년도 1/4분기 사업보고 : 명예회원 모시고 보고합니다. 공식미사 후, 소강당(활동, 명예회원 참석 후 다과회)
6. 금주 모임 : ①사목회－2일(화) 후 8시30분, 회합실
   ②자모회－4일(목) 레지오회합 후, 회합실
7. 차주 모임 : ①꾸리아－7일(일) 후 2시, 강당
   ②청년회－7일(일) 후 4시, 회합실
   (회합시간 변경－매월 첫주 일요일 후 4시)
   ③울뜨레야－11일(목) 후 7시30분, 회합실
8. 청소 안내 : 금주－정의의 동정녀Pr., 차주－사랑하올 어머니Pr.

□ 지난주 봉헌금 : 1,005,770원 □ 교무금 : 1,438,500원

＊ 전 동

주임신부 81－0098 사 무 실 84－3222 주임신부 김 봉 희
보좌신부 82－7245 수 녀 원 82－9234 보좌신부 송 영 진
F A X 82－6232 유 치 원 84－8347 사목회장 주 환

1. 금주 모임 : ①사순절 공동 2차헌금 ②차량 축복식－공식미사 후 ③교무금 납부주일 ④예비자 성지순례(치명자산)－후 2시 성당 집결 ⑤중·고등부 판공성사－9시미사 후 사랑방
2. 차주 모임 : ①성가정회－1일 전 11시 ②단물회－2일 전 10시 ③성모 성심회－4일 후 3시
3. 차주 모임 : ①제속글라라 형제회－후 1시30분 ②에덕의 모후－후 3시 ③요셉회－후 6시 ④울뜨레야－후 8시
4. 영세식 : 4월 6일 후 8시(성야미사)
   ＊ 영세자 면담 : 화요일반, 학생－1일 오전 10시～12시
   수요일반－2일 오전 10시～12시
   일요일반－2일 오후
   목요일반－3일 오전, 오후
   ＊ 영세자 집중교리 : 4월1일～4일 후 8시, 장소－강당
5. 성주간 전례 : ①4일(성목요일) 주의 만찬 미사－후 8시, 철야 성체조배 ②5일(성금요일) 수난 예절－후 3시, 성지 복구를 위한 2차헌금 ③6일 부활 성야 미사－후 8시
6. 부활 대축일 계란 선물 나누기 : 1인 1개씩 그려 선물할 수 있도록 준비바랍니다.
7. 부활 대축일 미사 시간 : 전 9시, 10시30분, 후 3시, 5시, 7시 (새벽미사는 없습니다)
8. 감사헌금 : 십만원(익명)－감사합니다.

□ 주일헌금 : 2,494,410원 □ 교무금 : 2,464,000원

＊ 평화동

주임신부 85－6979 수 녀 원 87－0229 주임신부 이 상 섭
F A X 82－6686 사 무 실 83－8245 사목회장 강 상 근

◉ 사순절 성미 주머니, 돼지 저금통 잘 관리 하시는지요?
1. 성삼일 전례 : ①성목요일 주의 만찬 미사－후 8시
   ②성금요일(단식과 금육) 십자가의 길－후 3시, 주의 수난예식－8시(성지 복구를 위한 특별 헌금 실시)
   ③성토요일 부활 성야 미사－후 10시
2. 부활 대축일미사 : 전 9시, 전 10시30분, 후 4시(어린이), 후 7시 30분
3. 부활 대축일 나눔 잔치 : 10시 30분 미사 후
4. L.M 아치에스 행사 : 오늘 후 2시 30분, 레지오 마리에 전단원 참석
5. 부활 계란 봉헌 : 4월 6일－6,7,8구역반은 2판, 그외 구역반은 1판. 2개씩 포장해서 봉헌하세요.
6. 예비자 모집 : 목요일 낮반 및 저녁반. 입교식－4월 18일(목) 후 8시
7. 성전 대 청소 : 4월 2일 전 10시(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됩시다)
8. 오늘은 사순절 운동 공동 2차 헌금 있습니다.
9. 재활용 폐품 수집 : 청년회원 일동(신문, 잡지류, 빈병, 캔 종류 등)
10. 계란 판매 : 부녀회, 부활초 판매－중·고등부 학생회

□ 지난주 봉헌금 : 1,724,470원 □ 교무금 : 2,449,000원

상설 고백소 : 매주 화요일～금요일 오후 2시～5시, 전동 성당